‘어반 러브스토리’로서의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

최태화*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구루리 타쿠조의 인물상
1. ‘토라상’의 오마주, 구루리 타쿠조
2. 에돗코 타쿠조
Ⅲ. [도쿄 센티멘털]의 공간
1. 야나카
2. 후카가와
3. 오시아게
Ⅳ. 오버랩되는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의 공간
1. ‘어반 러브스토리’로서의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
2. PPL
Ⅴ. 맺음말

|국문초록|

도쿄의 공간을 테마로 하는 현대일본드라마와 문학콘텐츠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도쿄의 시타마치를 배경으로 에돗코 기질의 주인공의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 [도쿄 센티멘털]을 중심으로 ‘어반 러브스토리’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인공 타쿠조의 캐릭터와 드라마에 사용된 공간을 분석하

* 고려대학교 일본문화문학전공 시간강사

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먼저 타쿠조가 '헤이세이의 토라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캐릭터 설명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타쿠조의 에돗코적 성격을 도출하고, 에도시대의 미의식인 '이키(いき)'와 '쓰(通)'가 현대일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미의식임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드라마 속 공간이자 대표적인 시타마치인 야나카, 후카가와 오시아게를 분석하여, 현대의 도쿄에서 에도의 정취를 찾으려 하는 드라마의 목적을 확인한다. 이러한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도쿄 센티멘털]의 공간과 간접광고 등의 기법이 에도시대의 닌조본과 유사함을 고찰한다.

[도쿄 센티멘털]과 같이 공간배경의 위상이 스토리와 대등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르를 '어반 러브스토리(urban love story)'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공간배경과 이에 대한 설명의 방식 등의 유사성을 통해 닌조본 역시 '어반 러브스토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쿄 센티멘털]이라는 보조선을 통해 닌조본이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의 묘사에 집중하던 연애소설이 아닌, 공간의 묘사와 설명도 러브스토리만큼 중요한 장르였음을 확인 한 것은 닌조본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다. 타쿠조가 헤이세이의 에돗코라면 '어반 러브스토리' [도쿄 센티멘털]은 헤이세이의 닌조본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 도쿄 센티멘털, 닌조본, PPL, 어반 러브스토리, 야나카, 후카가와, 오시아게

Ⅰ. 머리말

예로부터 시타마치(下町)로 유명한 아사쿠사(淺草)와 유곽으로 유명했던 요시와라(吉原)의 사이에 있는 고토토이바시(言問橋)에는 노포(老舗) 화과자점 구루리야(くるりや)가 있다. 구루리야의 3대째 주인인 구루리 타쿠

조(久留里卓三-吉田鋼太郎)는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도쿄, 즉 에돗코(江戸っ子)이다. 지금은 부친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과자 장인이지만, 사생활에서는 3번의 이혼경력을 가진 55세의 독신남으로 언제나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타쿠조는 아르바이트생이자 가게의 상징(看板娘)인 스도 아카네(須藤あかね-高畑充希)에게 항상 질타를 받는다.

2014년 테레비도쿄(テレビ東京) 연말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東京センチメンタル)]의 설정이다. 2부작 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은 도쿄의 대표적 시타마치인 닛포리(日暮里), 야나카(谷中), 네즈(根津)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펼쳐지는 「야나카의 사랑(谷中の戀)」과 에도(江戸)시대의 유명한 유흥 지역이자, 도쿄 3대 마쓰리(祭)로 유명한 후카가와(深川)가 배경인 「후카가와의 사랑(深川の戀)」편으로 구성되어있다.

고령화 사회라는 일본의 사회현상을 반영, 중장년층의 시청자를 겨냥한 55세의 러브스토리는 호평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도쿄 센티멘털]은 테레비도쿄 계열에서 매주 금요일 심야에 방송되는 연속드라마인 '드라마24'에서 2016년 1월부터 분기드라마(クールドラマ)로 확장 방영된다.

야나카 및 후카가와와 마찬가지로, 분기드라마 [도쿄 센티멘털]은 1회부터 12회까지 시타마치적인 풍경이 남아 있는 시바마타(柴又), 오시아게(押上), 닌교초(人形町), 고이시카와(小石川), 나카노구 아라이야쿠시(中野區新井藥師), 기치조지(吉祥寺), 쓰쿠다지마(佃島), 아사쿠사 칸논우라(觀音裏), 진보초(神保町), 가구라자카(神樂坂), 료고쿠(兩國), 우에노 시노바즈(上野不忍)를 드라마의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한다.

분기드라마로 방영된 [도쿄 센티멘털]도 많은 인기를 얻는다. 이에 힘입어 2017년 1월 3일에 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SP-센주의 사랑(千住の戀)」이 방영되고, 2018년 3월 31일에도 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SP-오차노미즈의 사랑(御茶ノ水の戀)」이 편성되었다.

도쿄의 예스러운 시타마치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그 풍경에 어울리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드라마화 한다는 콘셉트는 아직도 소개되지 않은 많은 시타마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페셜드라마로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드라마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쿄 센티멘털]을 분석하여 현대에도 생명력을 지니는 에도시대의 미의식인 '이키(いき)'와 '쓰(通)'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구루리 타쿠조(久留里卓三)의 인물상

1. '토라상(寅さん)'의 오마주, 구루리 타쿠조

2016년 10월 10일, 테레비도쿄는 2017년 1월에 [도쿄 센티멘털]이 분기 드라마로 다시 방영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한다.[1)]

> 화과자 장인 구루리 타쿠조가 매번 다른 여주인공에게 마음을 뺏겨, 여러거리를 거닐며 데이트를 하고, 술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윽고 퇴짜를 맞는 (중략) 그 쉽게 사랑에 빠지는 모습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서 현대판·토라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으나 '현대판·토라상'이란 26년간(1969-95) 48부작시리즈로 개봉될 만큼 큰 인기를 얻은 [남자는 괴로워(男はつらいよ)]의 주인공인 구루마 토라지로(車寅次郎-渥美清), 즉 토라상에 빗댄 표현이다.

타쿠조가 토라상의 오마주임을 알려주는 소품으로는 중절모와 코트를 꼽을 수 있다. 타쿠조는 거리를 나설 때 마다 중절모를 쓰고 코트를 입는데, 중절모야 말로 토라상의 상징이며, 코트 또한 항상 토라상이 걸치고 있는 오버사이즈의 더블재킷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타쿠조에 대해 테레비도쿄에서는 '헤이세이의 댄디 토라상(平成

1) テレ東からのお知らせ www.tv-tokyo.co.jp/information/2016/10/10/194064.html, (검색일: 2018.08.10).



그림 1. 구루리 타쿠조와 구루마 토라지로(토라상)

のおしゃれ寅さん)'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고 있다. 여자에 약하고 인정이 넘쳐 오지랖이 넓은 토라상의 이미지에 댄디함을 더하기 위해, 타쿠조의 목에는 토라상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부적을 대신하여 라이카(Leica)M 카메라가 걸린다.

드라마의 설정에서는 타쿠조의 "취미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주신 오래된 SLR (Single-lens reflex) 카메라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었다.[2)]

결과적으로 드라마에서 타쿠조가 목에 걸고 다니는 카메라는 SLR이 아닌 RF (Range Finder) 형식으로 유명한 라이카 카메라로 설정되었다. 또한 그 라이카 카메라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주신" 것이라는 설정과도 달리, 2009년에 발매된 신형 디지털카메라인 라이카 M9이었다. 타쿠조의 라이카 M9은 2016년의 분기드라마에서는 2013년도에 발매된 최신 기종인 라이카 M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된다. 라이카M9, 라이카M 두 기종 모두 본

2) 東京センチメンタル 공식 홈페이지, www.tv-tokyo.co.jp/official/tokyo_sentimental, (검색일: 2018.08.10.).

체가격만 천만 원에 가까우며 렌즈를 포함한다면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카메라이다.

일견 클래식해보이나 실제로는 최고급 최신기종의 라이카 카메라를 휴대하고 있다는 설정은 에돗코이나 최신의 유행도 놓치지 않는 타쿠조의 '헤이세이의 댄디 토라상'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2. 에돗코(江戸っ子) 타쿠조

타쿠조의 댄디함은 비단 소지하는 카메라만이 아니라 타쿠조가 소비하는 문화의 세련됨을 통해서도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시타마치의 음식과 풍경을 담고 있는 드라마로서 같은 테레비도쿄 '드라마24'에서 방영하는 [고독한 미식가(孤獨のグルメ)](2012.01.05.~현재)가 있다.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인 이노가시라 고로(井之頭五郎)가 주로 시타마치의 일상적인 풍경과 음식점을 찾아간다면, 타쿠조는 같은 시타마치라도 가장 유명한 곳과 유서가 깊고 세련된 가게를 찾아간다는 설정으로 타쿠조의 댄디함과 세련됨(おしゃ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 라이카M을 들고 있는 타쿠조

예를 들어 같은 닛포리, 야나카, 네즈 지역을 다룸에 있어서 [고독한 미식가](시즌1 제11화)는 평범하고 어느 지역에서도 있을 법 해 보이는 '스미레(すみれ)'라고 하는 이자카야(居酒屋)를 다룬다면, [도쿄 센티멘털]에서는 지역공간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야바커피(カヤバ珈琲)'를 공간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차이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쿄에 대한 자부심과 토라상의 인정에 세련됨이 더해지면 에돗코(江戸っ子)로서의 특



그림 3. [고독한 미식가] 스미레(왼쪽), [도쿄 센티멘털] 가야바커피(오른쪽)

징이 갖추어 지게 된다. 에돗코의 개념은 가미카타(上方)의 문화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 18세기 중후반에 성립된다. 에돗코는 에도에서 태어나 '이키'와 '하리(はり)'를 신조로 하고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으며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통용되는 에도후기의 게사쿠(戱作) 작가인 산토 쿄덴(山東京伝)의 에돗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3]

다만 에돗코라는 표현은 에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지니는 좁은 의미의 향토의식이 아니라, 지방에서 에도로 유입되어 공생하는 잡다한 동류의 사람들이, 이 도시를 최상의 동네라고 느끼는, 일종의 연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에돗코가 신조로 삼고 있던 '이키'는 에로티시즘을 베이스로 하여 유행을 좇는 도시적 세련됨을 의미하는 에도시대 조닌(町人)계급의 일종의 도덕률이자 미의식으로 '비타이(媚態)', '이쿠지(意氣地)', '아키라메(諦め)'의 3가지의 징표를 가진다.[5] 또한 '이키'는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세련됨도 포함하는 바,[6] 세련된 공간과 음식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이키'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보여주는 타쿠조는 에돗

3) 山東京伝, 「總籬」,『黃表紙洒落本集』, 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58, p.357.
4) 나가시마 히로아키,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이앤씨, 2009, 77쪽.
5) 최태화, 「광의화된 이키(いき) — 닌조본에 묘사된 이키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111호, 한국일본학회, 2017, 147~165쪽.
6) 한경자,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이앤씨, 2009, 85쪽.

코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리'는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관철하려는 강한 정신을 의미하며 '오토코다테(男伊達)'로 불리던 협객의 행동양식과 마음가짐을 상징하기도 한다.[7]

분기드라마 [도쿄 센티멘털] 제10화 「가구라자카의 사랑(神樂坂の戀)」의 도입부에서 타쿠조는 손님이 온 줄도 모르고 거래처의 미야시타(宮下)와 전화로 말싸움, 즉 '하리아이(張合い)'를 한다. 이를 본 손님에게 아르바이트생인 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며 '하리아이'의 장면을 이해시키려 한다.[8]

스도　「미야시타상 전화에요」
타쿠조　「여보세요 켄짱. 아니야 그렇잖아도 나도 전화하려고 했었어. (중략) 뭐라고?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일절 켄짱에게서 밤 안살 거야. 뭐라는 거야 이쪽이야 말로 속이 시원하다. 지옥에라도 떨어져라 이놈아」
(중략) —손님이있었던 것을 알아차린 타쿠조—
타쿠조　「아, 죄송합니다」
스도　「아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에돗코의 장인기질(江戸っ子の職人氣質) 이라, 지금 건 (심각한 싸움이 아니라) 안부인사 같은 거에요」

결국 "에돗코의 장인기질"을 가진 '헤이세이의 댄디 토라상' 타쿠조는 헤이세이의 에돗코인 것이다.

7) 위의 책, 85쪽.
8) 이하의 용례는 필자의 번역에 의한다. 또한 원문의 게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제시한다.

Ⅲ. [도쿄 센티멘털]의 공간

1. 야나카(谷中)

도쿄는 메이지유신(1868) 이후에 새로이 만들어진 신도시이다. 또한 동시에 이미 도시로서의 기능과 문화를 갖추고 기능하고 있던 에도의 새로운 이름이기도 하였다. 도쿄는 일본의 전통에 '모던'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서양의 문물이 점차적으로 덧입혀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를 통해 도쿄는 에도문화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도시문화와 서양의 모던문물이 공존하는 공간이 된다.[9] 2014년에 방영된 2부작 연말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야나카의 사랑」편은 이와 같은 중첩된 도쿄의 역사를 밟아 가는 것처럼 야나카와 네즈 사이에 존재하는 에도시대와 근현대의 명소를 스케치하고 있다.

타쿠조는 닛포리역에서 야나카긴자(谷中ぎんざ)로 이어지는 에도시대의 시타마치 풍경을 담고 있는 상점가를 지나, 종전 후에 만들어진 야나카 하쓰네코지(初音小路) 에서 쇼와(昭和)시대로부터 이어지는 하쓰네코지의 역사에 대해 내레이션 한다. 그 후 타쿠조는 진흙을 굳혀 만든 희귀한 양식의 담벽인 쓰이지베(築地塀)로 유명한 관음사(觀音寺)를 지나간다. 관음사는 에도시대의 유명한 복수극인 아코 사건(赤穂事件)과 관련된 곳으로 에도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산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타쿠조는 「야나카의 사랑」편의 여주인공인 시타라 야스코(設樂靖子-高岡早紀)와의 만남을 갖게 될 아사쿠라 조소관(朝倉彫塑館)을 찾는다. 아사쿠라 조소관은 본편의 주된 공간적 배경으로, 그 건축에 대해 "화양절충(和洋折衷), 모던과 전통의 멋진 하모니"라고 내레이션 한다.

요컨대 도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도쿄 센티멘털]의 첫 번째 장소로서

9) 정형,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이앤씨, 2009, 127쪽.



그림 4. (왼쪽부터) 하쓰네코지 쓰이지베 아사쿠라 조소관

야나카를 택한 것은 에도의 전통과 현대 도쿄의 모던함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간을 내세우기 위해서였으며, 이러한 멋진 하모니의 상징으로 아사쿠라 조소관이 사용된 것이다.

2. 후카가와(深川)

연말 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 제2부, 「후카가와의 사랑」은 야나카의 다음으로 제목과 같은 후카가와를 공간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도 3대 마쓰리(祭), 혹은 도쿄 3대 마쓰리로 손꼽히는 후카가와 마쓰리가 열리는 후카가와는 흔히 '인정이 넘치는 시타마치', '에도정서' 등의 수식어가 붙는 곳이다. 후카가와가 인정과 '이키'의 거리로 인식되게 된 것은 후카가와의 도미오카 하치만구(富岡八幡宮)의 상점가인 몬젠나카초(門前仲町)를 중심으로 한 유흥가(岡場所)에서 활약하던 게이샤(芸者)들의 문화에서 유래한다.

하오리(羽織)를 걸친 모습이 특징적으로 하오리게이샤(羽織芸者)로 불리기도 한 후카가와 게이샤는 에돗코와 마찬가지로 '이키'와 '하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후카가와는 하오리게이샤를 통해 에도의 '이키'를 상징하는 곳이 된다.

'이키'는 '쓰'라는 미의식의 속성으로도 이해되기도 한다. '쓰'란 인정의 기미(機微), 즉 미묘한 움직임에 정통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에 통용되는 어떠한 일에 정통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쓰'의 반대말은 촌뜨기를 의미하는

'야보(野暮)'이다.[10] 이키와 하리를 갖춘 에돗코는 인정도 알고, 여러 가지 방면에 박식한 '쓰진(通人)'을 이상형으로 삼았으며 그 반대편에 위치한 '야보'를 경멸하였다.

타쿠조가 마돈나에게 도쿄의 명소와 음식점 등을 설명하는 (실제로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고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타쿠조가 헤이세이의 에돗코이자 도쿄의 시타마치에 정통한 '쓰진'이기 때문이다. 「후카가와의 사랑」 도입부에 보이는 후카가와로 가는 타쿠조와 이발소 주인 시바타가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는 시청자에게 타쿠조가 '쓰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시바타 「타쿠상 오늘은 어디로 가?」
타쿠조 「잠깐 토미오카 하치만궁에」
시바타 「그렇다면 몬나카(門仲)군」
타쿠조 「몬나카? 뭐라고 하는 거야 넌. 에돗코는 말이지 나카초(仲町)라고 부르지」
시바타 「어느 쪽이든 상관없자나. 폼이나 잡고 말이야」

'쓰'와 '야보'를 구분 짓는 흔한 방법은 아고(argot) 혹은 업계용어(業界用語)로 부르는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여 외부자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후카가와의 몬젠나카초를 나카초라 부르는 것은 에도시대부터 사용되던 에돗코들의 은어이다.

다메나가 슌스이(爲永春水)의 닌조본(人情本) 『슌쇼쿠 다쓰미노소노(春色辰巳園)』 2편(1833)의 서문에는 후카가와 일대의 지명을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으며 나카초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쓰미(후카가와의 은어-필자 주)의 풍속통이라도, 도바시, 나카초, 스소야구라 등 지명을 다 거론하기엔 너무 많으나, 인정이 넘치는 오시마초

10) 西山松之助編, 『江戸學事典』, 弘文堂, 1994, pp.296~297.

辰巳の風俗通、土橋仲町裾矢倉と、他のかぞへる類にあらず、よく人情に大島町

결국 몬젠나카초를 “나카초”라 부르는 타쿠조는 후카가와의 ‘풍속통’이 되며, 이를 “몬나카”로 잘못 줄여 읽는 시바타는 ‘야보’가 되는 것이다.

3. 오시아게(押上)

현재의 도쿄 스미다구(墨田區)의 오시아게(押上)는 도쿄스카이트리를 거점으로 지역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낙후된 올드 타운(old town)지역이다. 그러나 에도후기의 오시아게는 에도의 끝자락 혹은 에도의 건너편으로 여겨진 한산한 도시외곽의 공간으로 새로이 도시공간으로 편입되려 하던 뉴 타운(new town) 공간이었다. 교외지역이었던 오시아게는 에도후기, 가메이도 덴만구(龜戶天滿宮)를 비롯한 스미다가와 칠복신(隅田川七福神), 우시지마(牛嶋) 신사, 미메구리(三囲) 신사 등의 사사(寺社)가 영험하다는 소문으로 인해 소위 하야리가미(流行神)가 되면서 급격하게 핫스팟 행락지가 되었다. 인파가 몰리며 발전하였고 점차 시타마치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분기드라마 [도쿄 센티멘털] 제2화 「오시아게의 사랑(押上の戀)」편은 이러한 오시아게를 중심으로 무코지마(向島)와 혼조(本所)를 포함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오시아게는 도쿄의 랜드마크가 된 도쿄스카이트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지금의 도쿄스카이트리는 오에도 타워(大江戸タワー)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었다. 2012년 5월에 실시된 명칭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름이 오에도 타워였기 때문이다. 2차 공모에서 2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이름은 도쿄에도 타워(東京EDOタワー)였다.[11] 이와 같이 오시아게 지역은 에도가 도쿄로 탈바꿈하는 근대화의 과정을 거친 현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에도의 정취가 남아있는 시타마치로 인식되고 있다.

11) 新東京タワー株式會社, 『新タワーネーミング全國投票』 結果概要, www.tokyo-skytree.jp/press/pdf/080610.pdf, (검색일: 2018.08.10).



그림 5. 歌川廣重「龜戸天神境內」『名所江戸百景』와 제2화「오시아게의 사랑」중

오시아게, 무코지마, 혼조의 공간에서 에도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하야리가미였던 여러 사사(寺社)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메이도 덴만구는 오시아게를 상징하던 신사로 「오시아게의 사랑」편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공간적배경이다. 덴만구(天滿宮)는 학문의 신으로 숭상되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의 신사이며 비매(飛梅)전설 등의 관계로 대개 매화나무가 상징이 되는 곳이 많으나, 가메이도 덴만구는 등꽃으로 유명하다. 중심부가 높이 솟아, 활처럼 둥글게 보이는 소리바시(そり橋) 또한 유명하여 에도시대의 우키요에(浮世繪)에서도 이 곳의 상징으로 등꽃과 소리바시가 그려지고 있다. 타쿠조 역시 소리바시를 건너며 제2화의 여주인공인 아케미(明美-市川由衣)에게 "가메이도 덴진 등꽃마쓰리로 유명한 덴진사마(龜戸天神、藤まつりで有名な天神樣)"라고 설명한다.

[도쿄 센티멘털] 제2화의 공간으로 오시아게가 선택된 것도 앞서의 장소와 마찬가지로 에도를 연상시키는 시타마치의 공간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야나카, 후카가와, 시바마타, 오시아게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에피소드에서 사용되는 닌교초, 고이시카와, 아라이야쿠시, 쓰쿠다지마, 아사쿠사, 료고쿠, 우에노 등의 공간 역시 에도시대의 유산과 문화가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Ⅳ. 오버랩되는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의 공간

1. ‘어반 러브스토리(urban love story)’로서의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人情本)

연말특별드라마 [도쿄 센티멘털]은 다음과 같은 타쿠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 도쿄, 여기에는 많은 얼굴이 있다. 걸어보면 그걸 잘 알 수 있다. 바람, 냄새, 소리, 맛, 술, 그리고 여자, 최고의 동네 산책, 이것은 도쿄와의 만남의 기록이다.

[도쿄 센티멘털]은 타쿠조라고 하는 중년남성의 러브스토리이자 “도쿄와의 만남의 기록”이다. 공간이 타쿠조의 러브스토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러브스토리를 배치하였다고 보일 정도로 드라마 속 도쿄공간은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타쿠조는 드라마 속에서 도쿄(에도) 시타마치에 있는 사찰이나 유적, 유명한 가게 등의 유래 및 정보를 내래이션이나 상대역과의 대화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사족이 아닌 드라마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쿠조가 전달해주는 정보는 도쿄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시청자에게는 친근감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렇지 않은 시청자에게는 가이드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도쿄 센티멘털]은 도쿄명소안내기에 러브스토리를 결합한 “맛, 술, 그리고 여자, 최고의 동네 산책, 이것은 도쿄와의 만남의 기록”으로 이와 같은 장르의 문학을 ‘어반 러브스토리’라는 단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에도시대의 대중소설인 게사쿠(戱作)에도 ‘어반 러브스토리’적 성격을 가지는 소설이 있다. 앞서 “나카초”의 용례로 인용한 닌조본이 그것이다.[12] 닌조본은 19세기 초중반,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선정적, 관능적인 연애장면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애소설로 정의된다. 단 이에 그치지 않고

“적확한 에도 시정(市井)의 묘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평가도 받는다.[13]

닌조본의 대표작가로는 전술한 슌스이가 독보적이었다. 당시 슌스이의 닌조본 작품들은 1만부 이상이라는 기록적인 판매고를 자랑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슌스이 스스로 ‘닌조본의 원조’를 자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적확한 시정 묘사에 더하여 당시의 풍속 및 최신유행을 적극적으로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시켰다.[14]

예를 들면 『하루쓰게도리(春告鳥)』 제15장(1836)에서는 주인공인 바이리(梅里)가 입고 있는 최신유행의 ‘이키’한 패션을 세밀하게 묘사한 후 “시대의 풍속을 백 년 후의 풍류를 아는 훌륭한 분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 미숙하나마 적어둔다(時代の風俗を百年後の好士に見せんとて、おさなくもかひ付ぬ)”라고 첨언한다. 이 또한 닌조본에 있어서 당시의 풍속과 거리유행묘사의 위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닌조본의 배경은 에도의 시타마치였다. 따라서 [도쿄 센티멘털]의 공간인 아사쿠사(淺草), 우라칸논(裏觀音), 후카가와(深川) 등의 공간은 그대로 닌조본의 주인공들이 활약하는 주된 공간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닌조본의 효시로 불리는 짓펜샤 잇쿠(十返舍一九)의 『세이단 미네노 하쓰하나(淸談峰初花)』(1819)의 7~9회에는 각각 우에노(上野), 야나카, 닛포리(日暮里)에서의 꽃놀이의 풍경이 그려지고 있는데, 우에노는 제12화 「시노바즈의 사랑(不忍の戀)」, 야나카와 닛포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드라마 제1화 「야나카의 사랑」의 공간적 배경이 된다.

제11화의 배경인 료고쿠 또한 많은 닌조본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슌스이의 『다마쓰바키(娚眞都鬻婆喜)』제17회에서 등장인물들이 우연히 재회하는 장소는 료고쿠바시(兩國橋)이다. 또한 슌스이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닌조본을 간행한 쇼테이 킨스이(松亭金水)의 『슈쇼쿠 시보리노 아사가오(秋色絞朝顔)』 3회에서도 등장인물의 우연한

12) 3.2 후카가와 참조.

13) 西山松之助編, 『江戸學事典』, 弘文堂, 1994, p.438.

14) 최태화, 「닌조본과 딱지본대중소설 비교고찰-멜로드라마적 특성과 현대 영상콘텐츠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05(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8, 91~108쪽.

만남의 장소로 료고쿠바시가 사용되었다. 킨스이의 『데마리우타 산닌무스메(毬唄三人娘)』(1862-65) 제8회의 공간은 “료고쿠바시 강 건너편”이라 표현된 혼조 남쪽(현 료고쿠)에 소재하던 차야(茶屋) 아카무라야(赤邑屋)인데, 제11화 「료고쿠의 사랑」에서 소개되는 에코인(回向院)과 기라저택(吉良邸) 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토라상의 거리로 소개된 시바마타 또한 슌스이의 『슌쇼쿠 에이다이단고(春色永代暖語)』 제28회에서 주인공 소지로(宗次郎)가 악당과의 결투를 벌이는 장소로 “마쓰도에서 시바마타무라로 가서 제석천을 참배하고자 마음먹었으나, 도중에 해가 지기 시작하여 서둘러서 시바마타에 도착했다(松戸より柴又村へ出帝釋天王に詣んと心ざしけるが、途中にて日の暮れかゝりしかば心急ぎて柴又村へかゝりし)”와 같이 소개되고 있다.

「오시아게의 사랑」편의 오시아게, 무코지마, 혼조 지역은 슌스이의 『우메노하루(梅之春)』(1838)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우메노하루』에서도 가메이도 덴만구는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된다. 『우메노하루』 4편 제19회는 위기에 빠진 오류(お柳)를 오야에(お八重)가 구해주는 장면이다. 이때의 공간적 배경이 가메이도 덴만구로, 이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덴만구가 이곳에 창건 된지는 2백여 년 전 일로, 에도에 알려진 명소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계절에는 등꽃이 아름답고 (중략) 올라갔다 내려가는 소리바시는 각지지 말고 마음을 둥글게 가지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은혜의 표현일까. 경내의 매화는 이키스럽고, (후략)
>
> 天滿宮の此處に鎭座ましますは、二百余年の事にして、東に知らるゝ名所なり。春より夏にうつる頃は、藤の花房美しく (中略) 登り下りの反橋は、心丸かれ角あるなと、意見し給ふ御利益を表せしものか境內の梅は粹なる (後略)

당시의 닌조본은 일본전국에서 유통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으며 일종의 매스미디어와 같은 정보전달의 역할도 하였다.[15] 앞서 타쿠조가 전달해주던 가메이도 덴만구에 대한 정보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슌



그림 6.『우메노하루』4편 삽화와 제2화「오시아게의 사랑」중

스이의 설명은 에도에 거주하던 독자에게는 친근감으로, 타지의 독자들에게는 에도명소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가이드북에 걸맞게『우메노하루』4편의 권두화에는 가메이도 덴만구의 소리바시와 등꽃이 그려진 그림이 실려 있다.

닌조본은 연애소설로써 취급되어 온 경향이 강하나, 드라마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어반 러브스토리'의 성격이 명확한 [도쿄 센티멘털]을 보조선으로 삼아 닌조본을 비교해본 결과, 닌조본 역시 공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 '어반 러브스토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2. PPL

[도쿄 센티멘털]은 도쿄의 명소를 소개한다. 그런데 그 명소라는 곳은 사찰과 역사적 유물 등에 머무르지 않고, 오래된 노포는 물론 지역을 상징하는 유명한 음식점이나 가게 등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시설의 소개는 간접광고, PPL(product placement)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특별드라마 제1화에서 타쿠조와 야스코는 야나카에 있는 카페 '가야바커피'에 들어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15) 최태화,「일본 근세 광고문학과 슌스이닌조본에 보이는 광고의 역할」,『일본언어문화』25,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3, 693~711쪽.

야스코 「꽤나 세련되어졌는데 리모델링을 했나봐요」
타쿠조 「여기 주인이 돌아가신 후에 한번은 폐점을 했다고 해요」
야스코 「그랬어요?」
타쿠조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2009년에 옛 분위기를 살리면서 부활을 했다더군요」
야스코 「변함없이 거리이야기를 잘 아시네요」
타쿠조 「아니 뭐 취미 같은 거니까요」
타쿠조 「커피와 코코아가 브랜딩된 이곳의 명물 루시안 커피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부드러운 계란 샌드위치, 이게 맛있는 거지」
야스코 「우와 이거 오랜만이네요. 먹어도 돼요?」
타쿠조 「드시지요」
야스코 「맛있겠다. 맛있어. 변하지 않았네요」

도쿄의 동네를 잘 아는 '쓰'인 타쿠조가 '가야바커피'의 이력도 소개하고 직접 카페의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고 그 맛을 확인하여 "변함없이" 맛있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소개, 즉 선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드라마에서는 자유로운 PPL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규제를 우선하는 한국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PPL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간접광고의 오랜 전통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아사노 하루코(淺埜晴子)는 특히 최첨단 정보를 지면에 담는 에도시대의 구사조시(草双紙)류에서 가게나 상품을 선전하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난다며, 상품의 선전만이 아니라 독점적이었던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광고와 문학이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16)

아사노가 언급한 광고와 문학과의 관련성이 가장 현저하게 들어나는 구사조시 장르는 닌조본이라 할 수 있다. 슌스이의 닌조본 『소노 고우타 히요쿠노 무라사키(其小唄戀情紫)』 제13회에서는 아사쿠사(淺草)에 있는

16) 淺埜晴子,「景物本考」,『近世文芸』80, 2004, pp.55~70.

음식점의 선전이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 아즈마바시(吾妻橋)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인연을 데리고 건널 때마다 생각나는 이즈사(和泉佐)라는 곳은 센소지(淺草寺)의 가미나리몬(雷神門)을 나와서 동쪽으로 반정(半町)정도 남측에 있는 음식점으로 너무 유행을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촌스럽지도 않은 가게로 또한 그 가격도 싸서, (중략)
>
> 신 「그렇습니다. 요사이 히로코지(廣小路)의 음식점에서는 제일 음식을 잘 합니다. 거기에 오카미(女將)가 8대 단주로(団十郎)의 누나로 인심 좋은 사람입니다」(중략)
>
> 곤 「아 그래? 무엇보다 음식이 참 맛있네. 가게 이름이 뭐라고 하지?」
>
> 신 「예. 이즈미야 사조(和泉屋佐藏)라고 합니다만, 모두들 이즈사(和泉佐)라고 부릅니다」

타쿠조가 설명하고 있는 '가야바커피'의 선전과 비교해본다면, 아사쿠사(淺草) 히로코지(廣小路)에 있던 '이즈미야'의 정확한 위치, 오카미(女將)가 가부키 배우인 이치카와 단주로(市川団十郎)의 여동생이라는 사소하지만 '쓰진'만이 알 수 있는 가십성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주인공이 음식의 맛을 보증해주는 것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서 현실에 실재하는 가게를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전이 주된 목적일 것이나, 이러한 광고를 통해 드라마의 핍진성과 리얼리티 또한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V. 맺음말

도쿄의 시타마치를 배경으로 중년 남성의 연애담을 담은 [도쿄 센티멘털]은 에돗코이자 도쿄의 시타마치를 잘 아는 '쓰진'으로 그려지는 타쿠조

를 중심으로 야나카, 후카가와, 오시아게, 아사쿠사 등의 에도와 도쿄가 공존하는 공간에 대한 소개와 타쿠조의 반복되나 성취되지 않는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도쿄 센티멘털]을 통해 상기되는 에도정취에 대한 향수는 에도시대 당시의 시타마치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가게와 인물에 대한 선전과 사랑이야기로 구성된 닌조본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 된다.

[도쿄 센티멘털]에서 발견되는 현대 일본 드라마의 트렌드 중 하나는, [고독한 미식가(孤獨のグルメ)], [기치조지만이 살고 싶은 곳입니까(吉祥寺だけが住みたい街ですか)], [야마다 타카유키의 도쿄도 키타구 아카바네(山田孝之の東京都北區赤羽)]와 같이 도쿄의 공간이 주연이 되는 드라마 및 문학작품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든 드라마가 모두 테레비도쿄라는 지역방송국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도쿄지역방송국의 기획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3편 모두 많은 인기를 얻은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인정할 수 있다.

굳이 새로이 '어반 러브스토리'라는 장르 명으로 [도쿄 센티멘털]를 정의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공간+α(사랑, 힐링, 음식 등) 드라마'가 앞으로도 이어져 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영향을 통해 한국의 드라마와 문학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장르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어반 러브스토리'라는 명칭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과 지역명소, 음식점 등에 대한 선전이라는 목적은 [도쿄 센티멘털]의 구성방식을 규정한다. 이러한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이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은 닌조본 역시 공간을 중시하는 '어반 러브스토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도쿄 센티멘털]이라는 보조선을 통해 닌조본이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의 묘사에 집중하던 연애소설만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타쿠조가 헤이세이의 에돗코라면 '어반 러브스토리'인 [도쿄 센티멘털]은 헤이세이의 닌조본인 것이다.

에도시대의 게사쿠와 21세기의 [도쿄 센티멘털] 사이에는 나가이 카후(永井荷風), 이즈미 쿄카(泉鏡花)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亂步) 등, 일본근대를 대표하는 많은 문학가들에 의한 '에도 도쿄'의 시타마치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다. 또한 시타마치문학을 다룸에 있어 도시와 전원의 경계

지역의 특성에 주목하는 마에다 아이의 업적(『都市空間のなかの文學』, 筑摩書房, 1982)도 존재한다. 마에다의 선행연구를 이어 [남자는 괴로워]의 공간인 시바마타의 경계지역의 특성을 논하는 이시가미 후미마사(石上文正)의 연구도 있다.[17] 도시문학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문학콘텐츠의 전개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도시문학에 대한 고찰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고는 도시문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예로써 [도쿄 센티멘털]과 닌조본을 비교고찰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진전된 도시문학과 '어반 러브스토리'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17) 石上文正, 「映畵「男はつらいよ」シリーズの批判的ディスコース分析と社會分析—寅さんの兩義性について」, 『人間と環境 電子版』 9, 2015, p.18.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나가시마 히로아키,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이앤씨, 2009.

정 형,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이앤씨, 2009.

최태화, 「닌조본과 딱지본대중소설 비교고찰-멜로드라마적 특성과 현대 영상콘텐츠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05, 한국일어일문학회, 2018.

최태화, 「광의화된 이키(いき) — 닌조본에 묘사된 이키를 중심으로 —」, 『일본학보』 111호, 한국일본학회, 2017.

최태화, 「일본 근세 광고문학과 슌스이닌조본에 보이는 광고의 역할」, 『일본언어문화』 25,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3.

한경자, 『일본문학 속 에도·도쿄 표상 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제이앤씨, 2009.

西山松之助編, 『江戸學事典』, 弘文堂, 1994.

山東京伝, 「總籬」, 『黄表紙洒落本集』, 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58.

淺埜晴子, 「景物本考」, 『近世文芸』 80, 2004.

石上文正, 「映畵「男はつらいよ」シリーズの批判的ディスコース分析と社會分析—寅さんの兩義性について」, 『人間と環境 電子版』 9, 2015.

2. 기타

テレ東からのお知らせ www.tv-tokyo.co.jp/information/2016/10/10/194064.html, (검색일: 2018.08.10.).

東京センチメンタル공식홈페이지,www.tv-tokyo.co.jp/official/tokyo_sentimental, (검색일: 2018.08.10.).

新東京タワー株式會社, 『新タワーネーミング全國投票』 結果概要, www.tokyo-skytree.jp/press/pdf/080610.pdf, (검색일: 2018.08.10.).

<Abstract>

[*Tokyo Sentimental*] and *Ninjobon* as 'Urban Love Stories'

Choi, Tae-wha

Today, 'Tokyo's space' has become a prevalent theme in modern Japanese drama and literatur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genre of 'urban love story', in case of the drama [*Tokyo Sentimenta*], which portraits the love of *Edokko in shitamachi*, Tokyo.

For that object, Takuzo's character and the space used in the drama was keenly analyzed. First, Takuzo's character description- '*Torah-san* of Heisei', was used to derive Takuzo's *Edokko* character. This suggests that the aesthetic sense of Edo Period, iki(いき) and *tsu*(通), still stands in modern Japan.

Next, the typical *shitamachi*, such as Yanaka and Hukagawa Oshiage,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e drama: seeking the Edo atmosphere in modern Tokyo. Therefore, the use of space and Products in Place(PPL) shown in [*Tokyo Sentimental*] are similar to those of *Ninjobon* from Edo Period.

If we define a genre attaching significance on spatial background an 'urban love story', it can be clarified that [*Tokyo Sentimental*] and *Ninjobon* share a lot of similarities. This also confirms that *Ninjobon* is not only a suggestive romantic novel, but an important piece which

focuses on the space as well as the love stories. If Takuzo was an *Edokko* from Heisei, 'urban love story' [*Tokyo Sentimental*] would be Heisei's *Ninjobon*.

Key words : Tokyo Sentimental, Ninjobon, PPL, Urban love story, Yanaka, Hukagawa, Oshiage

이 논문은 2018년 9월 16일 투고되어 2018년 10월 7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15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